

'장수녹반석벼루장' 도 무형유산 지정 예고

장수 대표 특산물 녹반석에 담아낸 장수녹반석 벼루장... 전통벼루 공예기법 전승·보존

'장수녹반석벼루장'이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신규종목으로 지난 7일자로 지정 예고됐다.

장수군에 따르면 '장수녹반석벼루장'이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위원회로부터 △전통벼루 공예기법을 전승하고 보존하고 있다는 점 △벼루의 원석인 '녹반석' 산지가 장수 침령산성, 번암면 등지에서 확인되어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벼루는 삼국시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당방은 문방사우(文房四友)의 하나로 재질에 따라 토연(土硯), 도연(陶硯), 석연(石硯) 등으로 구분된다.

다양한 예술적 문양이 가미된 선비의 뜻을 담은 특별한 도구이며 벼루의 형태와 새겨진 문양, 용도에 따라 수많은 의미와 가치를 내보여 한국의 서예 문화를 대표하는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장수녹반석벼루장'은 한국의 서예문화를 대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울산 벼루장, 충남 보령남포벼루제작, 충북 자석벼루장, 경기도 벼루장에 이은 5번째 벼루

장으로 종목을 인정 받았다.

특히 장수녹반석은 '곰돌'로 알려진 각섬석에서 녹색 계열 반점이 확인되는 석재로서 녹색 반점의 석연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 특징이다. 벼루 원석으로 최상의 조건을 지닌 석재라 할 수 있으며, 공주 무령왕릉 출토 진묘수(보물)와 완주 갈동 출토 동검동과 거꾸집 일괄(보물)이 장수산 곰돌로 제작된 대표적 유물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서예문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통벼루의 제작기법을 장수를 대표하는 특산물인 녹반석에 담아낸 장수녹반석 벼루장이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 예고됨을 환영한다"며,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장수군의 무형유산 발굴을 적극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녹반석벼루장은 30일간의 지정 예고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장수녹반석벼루장'이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신규종목으로 지난 7일자로 지정 예고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고창 선운사에서 힐링 시간 가져요”

선운사 템플스테이 '여행가는 달 행복 두배' 특별 행사 진행

고창의 천년고찰 선운사 템플스테이에서 '여행가는 달 행복 두배' 특별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국내의 여러가지 사건들로 머리도 마음도 복잡한 이때, 템플스테이로 하루쯤 쉬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선운사는 사계절 자연경관이 아름답다. 특히 봄철은 천연기념물 수령 540년 남지

한 우리나라 토종 동백꽃이 영산전, 대웅보전을 병풍처럼 둘러쳐 있어 경관이 빼어나다.

도솔천에 흐르는 물 소리, 차 밤에 푸른 봄내음을 맡으며 도솔제, 천마봉까지 걸기 명상으로도 손색이 없다.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선운사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고창=김영식 기자

'제28회 남원시 옷칠 목공예 대전' 내달 4~6일 참가신청 접수

남원시는 전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옷칠 분야 공모전인 '제28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 대전'이 옷칠 목공예의 고장 남원에서 개최된다.

이 대전은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 목공예협회가 주관하는 대회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가 후원한다.

전통 옷칠 목공예의 계승과 신진 작가들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열리는 이 대전은 매년 전국의 많은 공예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옷칠로 디자인한 일상생활 목공예품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신진 작가들의 등용문으로 각광받고 있다.

대전 분야는 △옷칠 목공예 △같이 공예 분야로 다양한 옷칠 공예 소재 중에서도 남원을 상징하는 목공예만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한국 전통 목기 제작 기술인 같이 공예 분야를 별도로 구성 전통의 계승과 현대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남원 시청 1층 강당과 서울 남원 장학숙(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봉로23길 13-6) 2개소에서 3일간 받는다.

시상은 총 37점으로, 상장과 상금은 총 1억 3,000만원(대상 3,000만원)을 수여하며, 시상식은 제95회 춘향제 기간 중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서 수상작 전시회와 함께 열릴 예정이다



으로,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시청 문화예술과(063-620-667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남원시는 그동안 대전에서 수상한 작품들과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남원이 가진 문화예술 자산인 옷칠 목공예 조명과 지역 문화 활성화 그리고 옷칠 목공예인 육성·발굴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남원 현대 옷칠 목공예'를 추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 제95회 춘향제 공간 확장

더 많은 볼거리·즐거거리·먹거리 마련

남원시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하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축제인 제95회 춘향제를 더욱 확장된 공간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처음 기존 광한루원과 요천 일대에서 진행되던 행사장을 금암공원과 유채꽃밭까지 확대하고, 먹거리 공간을 확충해 방문객이 더욱 많은 볼거리, 즐거거리, 먹거리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금암공원은 야경 명소로 새롭게 변신해 관광객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며, 춘향제 기간에는 야간경관을 추가 조성해 아름다운 야경을 선보여, 관광객들에게 밤에도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고, 주차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하고 쾌적한 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유채꽃밭은 승사교 아래 둔치 유휴지 3ha를 활용에 조성해 포토존으로 운영하고, 풀마 공연 무대도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며, 숙박을 해결하기 위해 차박 & 캠핑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먹거리 공간은 기존의 경외상가, 사람의 광장 앞 요천둔치에서 운영되던 공간을 요천 하



단까지 확장에 더욱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즐거운 축제를 만들 예정이다.

기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도 마련해 더욱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주요 신규 프로그램으로는 △동행축제(춘향제 페스타 합인행사) △남원의 소리를 주제로 한 공연 및 전시 △축제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일장춘몽 콘서트 △전통과 현대 국악의 감각적

인 조화를 담은 요즘국악, △남원 시민 300여 명이 함께하는 대규모 시민 공연 △춘향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춘향제 아카이브 전시장' 등 100여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

남원시 노경록 관광과장은 "올해 춘향제는 시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가자와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대규모 화합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업설명회 12일 개최

고창문화도시센터가 오는 12일 오후 3시 고창문화도시센터 1층 세미나실에서 '2025 고창문화도시 조성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치유문화도시 고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2024년 사업성과 보고를 시작으로, 2025년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5년 사업 방향과 핵심 목표를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며, 주민 참여를 확

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문식 고창문화도시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고창 문화도시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설명회는 고창군민 누구나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창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www.gcx23.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전주매일 캠페인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종단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었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었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